

# 전통액션연희극 '쾌도난장' 공연

진안군, 7월 문화기획 공연으로 28일 진안문화의집서 개최... 군민 누구나 무료 관람

전통액션연희극 '쾌도난장'이 오는 28일 오후 7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 무대에 오른다. 진안군은 21일 7월 문화기획 공연으로 해산(海山) 유숙(劉淑)의 조선 후기 풍속화 대패도(大快圖)를 모티브로 제작된 연희극 '쾌도난장'을 준비했다.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매일 무료로 실시해온 문화기획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단됐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가 해산 유숙이 그린 대패도를 본 후 이를 계기로 제작된 전통연희극이다. 옛대 패와 아랫대 패가 만나 매년 실력을 겨루었다는 결연택견의 이야기에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담아 완성한 작품이다. 관객들이 쉽게 호응할 수 있는 화려한 장단, 유쾌한 입담, 호쾌한 액션, 신명 나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발전소 열타가 기획·제작한 이 공연은 2020년 9월 반석아트홀 공연, 서울남산국악당 공연 등 다수의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전통액션연희극 '쾌도난장'이 오는 28일 오후 7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 무대에 오른다. 김현수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군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 준비할 계획이다"며 "군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로우앙상블' 금관과 함께하는 시원 콘서트

전주문화재단, 27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공연

전주문화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The Classic: 사계 그리고 영화'의 두 번째 무대를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다. 두 번째 무대를 꾸밀 단체는 '로우앙상블'로 트럼펫, 호른, 트럼본 등 금관악기로 구성된 단체다. 클래식은 물론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듣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의 Summon the Heroes'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크리스 하젤의 'Three Brass Cats', 존 윌리엄스 'Trilogy' 등이 연주된다. 또한 영화 '라리랜드' OST로 널리 알려진 저스틴 허위츠 'Epilogue' 등 여러 명곡을 로우앙상블만의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를 잊고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들과 함께 프로그램 이해를 도울 해설이 진행돼 공연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로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이나 전화(063-280-7040)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신인 연주자 ·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 펼쳐진다

부안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나도 아티스트 II' 25일 부안예술회관서 무료 공연

부안군은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두 번째 이야기 '2022 나도 아티스트 II'를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작년에 선보인 '나도 아티스트'에 이어 재능이 넘치는 부안 출신 및 부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활동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기획된 공연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연주자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이다. 이번 연주회가 큰 무대에 서기 쉽지 않은 신인 연주자들에게 더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며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신인 연주자들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한층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할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안의 신인 연주자들에게 응원과 환호해 주시길 바란다. 신인 연주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연주자들 비롯한 관객들에게도 뜻깊은 공연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공연 시작 전 30분 전부터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남원시관광협의회, 관광업종사자 역량강화 나선다... 오늘 교육 진행

남원시관광협의회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22일 관광업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다시, 서비스로 세일즈하기'라는 주제로, 제주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 강사 및 컨설턴트 및 K트래블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는 오형수 강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강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 사례와 해외 최신 관광 트렌드 안내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관광에 관심 있는 남원시민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 대해서는 남원시관광협의회(063-633-5353)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완판본문화관,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은 8월 6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완판본 전기수, 춘향전을 들려다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완판본 전기수, 춘향전을 들려다오'는 조선시대 고전 소설을 읽어주던 직업 이야기꾼 전기수의 구연 방식에 주목해 지역의 어린이와 함께 고전 소설을 소리 내어 읽어 보기 위해 기획했다. 고전 소설 속 이야기를 관소리의 발성, 호흡, 동작을 기반으로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여기에 문학, 미술, 한국음악 등을 결합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안준영 관장은 "지역의 어린이들이 고전 소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했다"며 "완판본 어린이 전기수가 들려주는 '춘향전'을 통해 고전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완판본 전기수, 춘향전을 들려다오' 프로그램은 이야기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청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전달하고 싶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10~13시, 고학년(4~6학년)은 14~17시로 나눠 매주 토요일 총 8회차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수강 인원은 분반별 각 10명이다. 프로그램 문의와 수강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완판본문화관(063-231-2212~3)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본 공연은 공연 시작 전 30분 전부터 선착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